

성균관대 2020 자료

코드킴의 인문논술

## 개괄

성균관대학교는 3개의 문항이 나옵니다. 시간은 100분입니다. 자수 제한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한 문항당 600자~700자 정도를 요구합니다. 문장의 수로 치자면 12문장 정도 작성하시는 게 가장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답안입니다.

제시문의 수도 6개로 적지 않은데다가, 2번 문항에서는 다수의 도표/그래프 분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읽어내는 데에 정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 내에 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잦은 기출 풀이를 기반으로 시간 배분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해봐도 시간 배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각 문항당 40/30/30 분을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문항의 풀이 과정에서 각 제시문들의 독해와 분류의 설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성균관대 논술은 정답성이 높은 편입니다. 정량적으로 답안을 뽑아내기 쉽다는 것이죠. 허나,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수적입니다. 수능 끝나고 공부하기엔 시간이 없습니다. 만일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지내셨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비슷한 유형의 논제를 내는 학교로는 경희대(사회 계열), 한국외대가 있습니다. 제시문 독해 방법과 1번 문항의 분류 요약 문항 풀이에 있어서 이 자료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드킴의 인문논술

# 독해 방법론

성균관대 인문논술에서 가장 효율적인 독해 방식은 글이 작성된 방식에 따라서 글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경희대(사회 계열), 한국외대의 인문논술 시험처럼 제시문이 짧고, 수가 많으며, 깊은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디든 활용 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표면 독해'라고 합니다.

## 표면 독해 방법론

표면 독해는 글이 작성된 방식에 따라서 글을 읽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우리가 만날 글들은 크게 나눠보자면 비문학/문학으로 나눌 수 있고, 비문학은 설명문/주장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문학은 시/소설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비문학의 정리법부터 알아보시다.

먼저, 비문학과 문학으로 글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비문학은 나오는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비문학도 작성 방식에 따라 주장하는 글과 설명하는 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비문학의 독해

주장하는 글이든 설명하는 글이든, 제시문을 '주장 + 근거'의 형태로 정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주장하는 글과 설명하는 글의 정리 과정이 약간 다를 뿐입니다.

주장하는 글은 '주장 + 근거'의 형태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주장하는 글들은 주장과 그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고, 근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으세요. 하나의 주장에 대해 여러 근거가 나온다면 숫자를 붙여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논리적 순서에 따라 숫자를 달아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근거 간의 논리적 순서가 비틀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장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논제의 발문 분석을 통해 제시문의 제재를 찾으신 뒤, 그것을 제시문의 독해 과정에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재에 대해 명료하게 정리된 주장이 드러납니다. 이 경우, 제시문의 내용들은 그 주장의 근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명하는 글의 경우에는 '설명하는 대상 + 대상의 특징'으로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더 세부적으로 설명 방식들을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대상의 특징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두드러집니다.

설명의 방식에는 인과, 나열, 과정, 사례 제시가 있습니다. 더 많은 설명 방식이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균관대 제시문으로 만날 수 있을만한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인과는 '원인-결과'의 형태로 대상을 설명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상을 중심으로 두고 원인과 결과로 대상의 특징을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원인과 결과의 순서를 명료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열은 대상의 특징 여럿이 병렬적으로 나열되는 형태를 뜻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상의 특징을 차분하게 하나씩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나열이 이루어졌다면 과정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선후 관계를 잘 따져서 특징들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제시는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앞에 추상적인 원리가 등장하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하는 경우죠. 이 경우엔 사례에 어떻게 원리가 적용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사례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원리 - 사례'의 설명하는 글의 구도로 보시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주장 - 근거'의 관계로 보시는 게 더 타당합니다. 사례를 통해 근거만 제시하고, 숨겨진 주장을 발문의 제재와 연결시켜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 문학의 독해

문학은 여러 갈래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논술은 정답이 정해져있듯, 문학도 하나의 해석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분류 요약 유형 문제에서 절대적인 답안이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 대학들은 이런 모호성을 막기 위해 주제를 내세우고, 해당 주제로 제시문을 읽도록 유도시킵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인 분류 요약형에서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해당 키워드를 끌고 가서 제시문들을 독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문의 경우에는 화자를 중심으로 보시면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훨씬 더 쉽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화자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하여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되는지를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종합하여 논제가 제시하는 키워드와 연결시켜 견해를 뽑아내세요.

산문의 경우에는 등장 인물과 사건, 해당 사건의 결과와 원인을 정리해보세요. 그 이후에 논제가 제시하는 키워드와 연결시켜 견해를 뽑아내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물론, 어떤 운문의 경우에는 화자의 상황이나 감정, 태도들 중 몇몇개를 알아낼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럴 때엔 과도한 추론으로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알아내려 하지 마세요. 찾아낸 내용들만을 가지고 논제의 키워드와 연결시켜 견해를 추론해내시기 바랍니다. 산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 중에 어떤 것을 어디에 정리하느냐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통해 키워드에 대한 어떤 견해를 뽑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더욱 간단하게 말하자면, 운문이든 산문이든 해당 작품이 키워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는지, 그리고 무엇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는지를 '주장-근거'의 관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화자 중심으로 운문을 정리하는 것, 사건 중심으로 산문을 정리하는 것이 '주장-근거'의 관계를 찾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 독해 방법론 정리

주장하는 글일 경우 - 주장 + 근거

설명하는 글일 경우 - '설명 대상 + 특징'을 통해 '주장 + 근거' 도출

문학의 경우 - 작품이 키워드에 대해 갖는 견해 + 근거

## 코드킴의 인문논술

## 분류 요약 방법론

분류 요약 유형 논제는 성균관대의 1번 문항으로 나옵니다. 여러 제시문들을 한 주제에 대해 상반되는 입장으로 분류하신 뒤, 각각의 제시문을 1~2줄로 요약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요령은 존재합니다.

### 발문의 분석

1번 문항의 발문 분석은 항상 제시문 독해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재 앞의 행동 지침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2018년도 기출부터 2020 모의논술까지 1번 문항 발문을 살펴보고,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확인해봅시다.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6>은 '인간 행위의 특성'에 관한 상반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30점)

2018 성균관대 인문 1교시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6>은 사회정의를 바라보는 상이한 관점을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30점)

2018 성균관대 인문 2교시

### 코드킴의 인문논술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6>은 대중문화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35점)

2018 성균관대 인문 3교시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7>은 바람직한 국가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30점)

2019 성균관대 인문 1교시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6>은 법치주의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30점)

2019 성균관대 인문 2교시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4>는 <보기> 속의 정책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30점)

2020 성균관대 인문 모의

위 발문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4~7개의 제시문이 등장합니다. 제시문이 4개라면 너무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2020 성균관대 논술 가이드북을 살펴보면 '보통 4~7개 사이'의 제시문을 출제한다고 적혀있습니다. 2020 모의논술에서는 4개의 제시문이 분류 요약 논제에 등장했으니, 실제 시험에서도 4~5개의 제시문이 등장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물론 제시문의 숫자 자체는 논제의 난이도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각 발문들은 제시문 독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독해의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2019 성균관대 인문 1교시의 경우에는 각 제시문들을 독해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국가에 대한 견해'가 각 제시문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 분류의 기술

제시문들의 분류는 언제나 제시문 독해를 끝까지 마친 뒤에 하셔야 합니다. 제시문을 독해하지 않은 채로 분류를 시도하지 마세요.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나 답을 찾을 때엔 근거를 통해 답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지, 답을 정해두고 근거를 찾으려고 해선 안 됩니다.

분류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입장을 대변할 핵심어입니다. 이런 핵심어들은 여러분들의 교과적인 지식을 통해서 채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특히 경희대 사회계열의 경우), 그렇게 추천할만한 방식은 아닙니다. 어떤 제시문들은 핵심어를 반드시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논제의 사례를 통해 살펴봅시다. 이는 독해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7>은 바람직한 국가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30점)

## 코드킴의 인문논술

(2019 성균관대 인문 1교시)

<제시문 1>

부와 소득 불평등에 관한 어떤 경제적 결정론도 경계해야 한다. 부의 분배는 언제나 정치적 요인이 결부되어 있는바 순전히 경제적인 메커니즘으로 환원될 수 없다. 예컨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910년에서 1950년 사이에 불평등이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전쟁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채택한 정책들이 불러온 결과였다. 이와 비슷하게 1980년 이후 불평등이 다시 커진 것은 대체로 지난 수십 년간 나타난 정치적 변화, 특히 조세 및 금융과 관련된 정책 때문이었다. 불평등의 역사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행위자들이 무엇이 정당하고 무엇이 부당한지에 대해 갖게 된 견해들, 이 행위자들 사이의 역학관계, 그리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집합적 선택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역사는 불평등이 모든 관련 행위자들이 함께 만든 합작품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는 자연적이고 자생적인 과정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제시문 2>

풍요는 '공동선'(common good)을 위해 대중들이 희생한 대가로 달성된 것이 아니라 자유분방하고 생산적인 천재들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창출되었다. 그들은 국가의 산업화를 위해 국민들을 결코 굶기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 높은 임금, 새로 발명한 기계 및 모든 과학적 발견, 기술의 발전을 이용하여 생산한 값싼 상품들을 공급했다. 그 결과로 국가 전체가 발전했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개인이 혜택을 입었다.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는 오류를 범하지 말자. 도덕적 목표나 의무감을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않고도 국가의 선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가의 선은 결과이고 그 원인은 자신의 목표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이다. 자본주의는 인간권리를 보장해 준 결과

때문이 아니라 인간권을 보장해 준다는 그 사실 자체로 정당화된다. 자유 시장에서 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경제 행위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이 수요-공급법칙의 도덕적 의미이다. 그것은 악의에 찬 두 가지 교의인 집단주의와 이타주의를 전적으로 거부하며 인간은 재산이 아니고 집단의 노예도 아니라는 사실 및 인간은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긍정한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합리적인 사리사욕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만일 그가 다른 사람과 교환하기를 원한다면 서로 동일한 가치를 교환해야 한다고 본다(여기서 동일하다는 것의 유일한 기준은 거래자의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강요되지 않은 판단이다). 이타주의는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를 위해 봉사하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능력 있는 자들의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하면서 지성으로부터 보상을 강탈하려고 하며, 집단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의 창출 과정에서 개인의 지성이 수행하는 역할을 전면 부인한다.

### 〈제시문 3〉

포괄적인 재분배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도덕적으로 선호되는 국가, 도덕적으로 용인되는 합법적인 국가는 몽상가들과 공상가들의 유토피아적 열망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국가이다. 최소국가는 우리를 불가침의 개인들로 취급한다. 즉 우리는 이 국가 안에서 타인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도 도구나 수단, 자원으로 이용될 수 없다. 최소국가는 우리를 권리를 소유한 존엄한 인격으로 취급한다. 우리의 권리들을 존중함으로써 우리를 존중해주는 최소국가는,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선택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목표와 스스로가 바라는 이상적 인간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우리와 동일한 존엄성을 지닌 다른 개인들의 자발적인 협동의 도움을 받는다.

## 코드킴의 인문논술

### 〈제시문 4〉

‘붉은 깃발법’으로도 널리 알려진 영국의 기관차법은 1865년 제정된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이다. ‘붉은 깃발법’은 자동차 최고 속도를 시속 3킬로미터(도심 기준)로 제한하고, 붉은 깃발을 든 기수가 자동차의 최소 55미터 앞에서 차가 오는 것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붉은 깃발법’은 마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되었지만, 사실은 당시 자동차의 출시로 위협을 느낀 마차업자들과 기차산업 종사자들이 정치적 로비를 벌인 결과였다. ‘붉은 깃발법’은 이후 약 30년간 유지되면서 영국의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였는데, 그 결과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은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변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 〈제시문 5〉

자유 시장 체제는 경제의 전반적인 추세를 규정하거나 공정한 기회 균등을 위해서 불가결한 사회적 여건을 제공하는 정치적·법적 제도 체계 내에서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입장도 결점이 있다.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능력과 재능의 천부적 배분에 의해 부나 소득의 분배가 결정되는 것을 허용한다. 소득과 부의 분배가 역사적·사회적 행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할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부적 재능의 분배에 의하여 소득과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도 허용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기회 균등의 원칙은 가족 제도가 존재하는 한 오직 불완전하게만 이루어질 수 있다. 천부적 능력이 계발되고 성숙하는 정도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 여건과 계급 양태에 영향을 받는다. 노력하고 힘쓰며 일반적인 의미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의욕 그 자체까지도 행복한 가정 및 사회적 여건에 달려있다. 실제로 있어서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술 습득과 교양에 대한 동

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시인하고 천부적인 운수가 미치는 자의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 〈제시문 6〉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일, 경쟁이 유효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만 비로소 경쟁을 대체하는 일, 그리고 거대 사회에 매우 유익하지만 어떤 개인이나 소수의 개인들이 그 비용을 보상할 수 있을 만큼 이윤이 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이 일들은 확실히 국가가 해야 할 분야들이다. 국가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체제는 없다. 효과적인 경쟁체제는 현명하게 제정되고 지속적으로 조정되는 법적 틀을 필요로 한다. 경쟁이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한 조건은 사기나 (무지한 사람에 대한 착취를 포함한) 기만을 방지하는 것에 국한된다. 이것은 완벽하게 성취된 적은 없지만 반드시 달성되어야 할 목표다.

#### 〈제시문 7〉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들어 유럽 지역 대부분을 위협한 경제 붕괴와 사회 혼란을 겪으면서 대중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제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안정과 공동체, 사회적 보호를 다시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가 등장했는데, 그들은 점점 깊어지는 나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의 출구를 제공했다. 그것은 국가를 통해 시장이 제자리에 복귀되고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근대성이 만들어낸 원자화, 뿌리 뽑힘, 사회적 불화가 극복된 새로운 사회의 비전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는 시장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그러나 폭력적인 해결책을 의미했다. 두말할 필요 없이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라는 치료법은 (그들이 치료하겠다고 나선) 원래의 병보다 더 나쁜 것이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겪고 난 이후의 유럽인들은 시장의 지나친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고 사회적 연대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고자 했다.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라는 해결책이 수반했던 민주주의의 희생과 자유의 유린 없이 말이다.

각각의 제시문들은 바람직한 국가에 대해 상반된 두 견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시문들을 독해한 후에 분류를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간혹 잘 나뉘지지 않는 제시문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분명하게 분류되는 제시문들을 먼저 분류하신 뒤에 생각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분류는 반드시 제시문을 독해한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류의 과정에서 해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각각의 분류로 묶이는 제시문들을 대표할 개념어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로 성균관대의 분류 요약형 논제는 사회탐구 과목의 기본적인 개념을 주제로 갖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회탐구를 공부하며 알게 된 명확한 교과적 지식을 사용하시는 것도 어느정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회탐구 과목의 교과 지식을 제시문에 잘못 대입했을 경우, 오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마다 공부하는 사회탐구 과목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가 불가능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개념어를 찾으실 때에 기존의 사회탐구 교과 지식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제시문에 집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생깁니다. 어느 제시문에서 어떤 개념어를 사용해 각각의 제시문들을 대표할 것인지죠. 일단, 예시로 든 논제와 제시문으로 다시 돌아가봅시다. 제시문들을 '바람직한 국가에 대한 견해'라는 분류 기준을 활용하여 두 견해로 나눠봅시다. <제시문 2, 3, 4, 6>과 <제시문 1, 5, 7>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누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견해들을 하나의 주장으로 묶기 위해서는 각 견해에 각각 하나씩 개념어를 제시하여 명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배경지식을 사용할 수 있다면 하셔도 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제시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제시문이 어떤 개념어를 지니고 있을지는 막막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개념어를 지닐 수 있는 제시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합니다.

1. 논제의 키워드와 관련된 개념어를 제시할 것
2. 해당 개념어가 하나의 견해 하에 묶인 제시문들에 총체적으로 사용 가능할 것
3. 각 입장마다 다른 제시문에 개념어가 존재할 수도 있고, 하나의 제시문에서 두 입장에 대한 개념어가 모두 등장할 경우가 있음. 후자의 경우에는 항상 두 개념어의 대비를 중심으로 제시문이 전개됨.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제시문을 찾아내시고 해당 제시문에서 개념어를 찾아 대표하신다면 훨씬 명확하고 체계적인 답안의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예시로 든 문항에 적용시켜봅시다. 위 조건을 만족하는 제시문은 <제시문 3>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시문 1, 5, 7>은 <제시문 3>에서 이야기하는 '포괄적인 재분배국가'와 연결되고, <제시문 2, 3, 4, 6>은 '최소국가'와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시문 5, 7>도 개념어를 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제시문 5>와 <제시문 7>도 개념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해당 입장에 속한 모든 제시문들을 포괄할 수 없습니다. 즉, <제시문 5, 7>에 나오는 개념어 처럼 생긴 단어들은 <제시문 3>에 나오는 것들처럼 모든 제시문을 아우르는 개념어로 활용하기에는 큰 결함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개념어를 앞세워 각각의 입장을 정리하신다면, 분류요약 문제의 심화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줄 수 있습니다. 바로 '제시문 간 논리적 순서 배정'이죠.

## 제시문 재배열

제시문들을 단순히 올바르게 분류하는 것만으로는 완벽한 답안을 써낼 수 없습니다. 견해를 이루는 각 제시문들 간에 논리적 순서를 부여하여 제시문을 재배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요약된 제시문들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각각의 견해를 하나의 논리적 흐름을 갖는 완성된 글로 표현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성균관대 인문 논술 가이드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문단은 '성균관대학교 2020학년도 논술가이드북 인문계'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2019 논술 가이드북에도 유사한 문구가 등장합니다.

**“종종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보면 핵심적인 사항이 아닌 내용을 장황하게 기술하든지 아니면 제시문 각각의 요약문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답안은 높은 득점을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1번 문항은 제시문 각각의 핵심 논지를 정확하게 요약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같은 입장으로 분류된 제시문들의 요약문을 유기적으로 통합시켜 작성해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틈이 나는 대로 논술시험과 관련성이 높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교과서들을 문단 단위로 요약해보고 또 그 결과를 하나의 글로 통합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제시문들에 논리적 순서를 부여할지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글을 읽는 방식을 다시 떠올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코프킴의 인문논술

우리가 앞서 제시문을 독해하고 정리했던 방법들을 갖고 글을 작성해보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봅시다.

## 원리 - 예시 - 심화적 예시의 구조

가장 원리에 가까운 제시문을 우선적으로 제시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예시에 가까운 제시문을 서술해주는 것입니다. 이 때 예시가 여럿이라면, 먼저 작성하셔야 할 예시는 원리 제시문과 가장 단순하게 연결되는 제시문입니다. 이후에는 단순하지 않은 예시들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심화적 예시는 일반적인 예시의 제시문과는 다른 예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한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죠. 이런 심화적 예시들도 몇몇 유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반대 견해의 비판'입니다. 제시문이 속한 견해를 옹호하는 예시가 아닌, 상대 견해를 비판하는 형식의 사례를 담은 제시문인 것이죠. 이 유형의 제시문은 가장 마지막에 서술하는 게 멋있습니다.

다른 유형으로는 '결함이 존재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이론과 잘 합치되는 듯 보이지만, 도덕적이든 현실적이든 어떤 것에 결함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결함이 존재하더라도 이론 제시문이 말하는 내용이 옳다는 것을 강하게 지지하는 형식의 제시문이죠. 이에 대한 예시는 2018학년도 성대 인문 2교시 기출의 <제시문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공리주의가 옳다는 것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례의 제시문이죠.

## 각 측면 마다의 서술 구조

하나의 견해에 대해 각 제시문마다 다른 측면의 근거를 들어 견해를 지지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제시문들이 하나의 견해에 대해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다양한 근거가 나오는 것이죠. 개인적 측면에서의 근거, 사회적 측면, 도덕적 측면, 현실적 측면 등등 셀 수 없이 다양한 측면이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시문들을 읽고, 각각의 제시문들이 어느 측면에 속하는지 판단을 내리고 순서를 정하시면 됩니다.

## 코드킴의 인문논술

## 답안 작성 요령

답안을 작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별도의 개요를 작성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제시문 독해의 내용과 제시문 간 논리적 순서 반영을 정리한 것으로만 답안을 작성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성균관대 논술에서 다루는 제시문과 논증 수준은 아주 간단한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답안 작성에 있어서 개요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에 숙달되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답안의 구조를 외워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외우고 기출을 통해 체화하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1. 분류 기준 제시
2. 견해 제시
3. 해당 제시문 요약
4. 견해 제시
5. 해당 제시문 요약
6. 제시문 간 관계 설정하여 순서대로 서술(3,5 과정에서)

1번 문항의 분류 요약 문제에서 답안 구조는 대체로 이런 형태를 갖습니다.

만일 가상의 <제시문 1~6>이 존재하고, 이들이 1,2,3 그리고 4,5,6으로 각각 나뉜다고 가정합니다.

먼저, 논제에 나온 분류 기준을 제시해줍니다. 다음과 비슷한 문장으로.

‘<제시문 1~6>은 “주제”에 대해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다음, 첫번째 입장을 제시해줍니다.

‘<제시문 1~6>은 “주제”에 대해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제시문 1,2,3은 “주제”에 대해 ~한 입장이다.’

이제 각 제시문들을 한 두줄로 요약해줍니다.

‘<제시문 1~6>은 “주제”에 대해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제시문 1,2,3은 “주제”에 대해 ~한 입장이다. 제시문 1의 요약, 제시문 2의 요약, 제시문 3의 요약’

이를 한번 더 반복합니다.

‘<제시문 1~6>은 “주제”에 대해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제시문 1, 2, 3>은 “주제”에 대해 ~한 입장이다. <제시문 1>의 요약, <제시문 2>의 요약, <제시문 3>의 요약.

그러나 <제시문 4, 5, 6>은 “주제”에 대해 ~한 입장을 나타낸다. <제시문 4>의 요약, <제시문 5>의 요약, <제시문 6>의 요약.’

## 자료 분석 유형 방법론

이제 많은 분들이 공포감을 느끼시는 자료 분석 유형으로 넘어왔습니다. 자료 분석은 논제의 형태에 따라 작성 방법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풀이 방식은 같습니다. 일단 발문들을 쭉 살펴봅시다.

[문제 2] 아래 <자료 1>, <자료 2>, <자료 3>을 각각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토대로 [문제 1]의 두 가지 입장 중 하나를 정당화하시오. (40점)

(2018 인문 1교시)

[문제 2] 아래 자료는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 A와 B의 정부정책에 관한 것이다. 이 자료들을 해석하고, 국가 A와 B가 [문제 1]의 두 가지 입장 중 어느 것을 지지하는지 각각 설명하시오. (35점)

(2018 인문 2교시)

[문제 2] <자료 1>과 <자료 2>를 해석하여 각 자료가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느 것을 지지하는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30점)

(2018 인문 3교시)

[문제 2] 지난 10년 간 국가 A와 B에서는 산업의 자동화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자료 1>과 <자료 2>를 연계하여 해석하고, 국가 A와 B가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40점)

## 코드킴의 인문논술

(2019 인문 1교시)

[문제 2] <자료 1>과 <자료 2>를 연결시켜 해석하고, 그 해석을 활용하여 [문제 1]의 한 입장을 옹호하시오. (35점)

(2019 인문 2교시)

[문제 2] 아래 <자료 1>과 <자료 2>는 ‘여성고용할당제’를 오랫동안 시행해 온 국가 A와 시행하지 않은 국가 B의 경제·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여성고용할당제 외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자료 1>과 <자료 2>를 해석하고, 이를 토대를 [문제 1]에 나타난 두 가지 입장을 각각 정당화하시오. (40점)

(2020 인문 모의논술)

위 발문에서는 ‘지지, 정당화’ 등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들의 풀이 방법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일반화시키면 ‘자료 분석 - 해석(제시문 별 구체화)’의 형식을 가집니다. 이곳에서의 해석 단계는 발문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분석의 단계부터 살펴봅시다.

## 분석의 단계

먼저, 자료 분석의 단계를 살펴봅시다.

자료는 보통 두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공시적 관점’과 ‘통시적 관점’이 있습니다. ‘공시적 관점’이라는 것은 어느 고정된 하나의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통시적 관점’이라는 것은 일정 시기 동안 대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공시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도표/그래프의 경우는 특정 시점에서 두 대상을 비교하는 형태가 특징입니다. 여기에서는 비교되는 요소마다의 차이점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통시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도표/그래프의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대상을 바라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통시적 그래프에 표기하는 대상이 둘 이상일 때에는 그들의 변화의 차이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가끔 공시적, 통시적인 분야가 모두 섞인 도표나 그래프가 나온다면, 이 둘의 관점을 모두 사용해서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읽는 방법의 실 사례는 뒤에 나오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석의 단계에서는 그래프나 도표가 가리키는 수치들의 차이, 변화에만 주목할 게 아닙니다. 각 표나 그래프는 분명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사용된 도표와 그래프들입니다. 각자의 요소들이 나타내고 있는 대상을 제시문의 내용과 연관지어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프와 도표가 가리키는 항목들에 대한 의미 부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는 해석의 영역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 해석의 단계

이제 그래프나 도표의 차이/변화의 해석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해석을 하기 전, 도표의 분석 결과를 글로 옮기시는데, 수치를 그대로 인용한다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냥 수치를 옮기지 말고, 수치들끼리 뺄셈, 덧셈을 통해 그들의 차이/변화를 더욱 명확히 해주신다면 당연히 더 좋을 겁니다.

해석의 단계에서는 각 제시문들과의 구체화를 통해 각 사건(변화나 차이)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를 추론하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제시문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이 되는 모든 제시문들을 사용하시되, 억지로 연결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시문이 한 자료와 연결이 안 된다면 버리고 다른 자료에 활용을 해봅시다.

그래프, 도표와 제시문 간의 연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신경써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떤 견해의 제시문과 자료를 연결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발문들을 다시 한 번 살펴봅시다.

[문제 2] 아래 <자료 1>, <자료 2>, <자료 3>을 각각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토대로 [문제 1]의 두 가지 입장에서 하나를 정당화하시오. (40점)

(2018 인문 1교시)

[문제 2] 아래 자료는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 A와 B의 정부정책에 관한 것이다. 이 자료들을 해석하고, 국가 A와 B가 [문제 1]의 두 가지 입장 중 어느 것을 지지하는지 각각 설명하시오. (35점)

(2018 인문 2교시)

[문제 2] <자료 1>과 <자료 2>를 해석하여 각 자료가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느 것을 지지하는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30점)

(2018 인문 3교시)

[문제 2] 지난 10년 간 국가 A와 B에서는 산업의 자동화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자료 1>과 <자료 2>를 연계하여 해석하고, 국가 A와 B가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40점)

(2019 인문 1교시)

[문제 2] <자료 1>과 <자료 2>를 연결시켜 해석하고, 그 해석을 활용하여 [문제 1]의 한 입장을 옹호하시오. (35점)

(2019 인문 2교시)

[문제 2] 아래 <자료 1>과 <자료 2>는 ‘여성고용할당제’를 오랫동안 시행해 온 국가 A와 시행하지 않은 국가 B의 경제·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여성고용할당제 외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자료 1>과 <자료 2>를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 1]에 나타난 두 가지 입장을 각각 정당화하시오. (40점)

(2020 인문 모의논술)

2018 인문 1, 2, 3의 기출들은 자료들을 분석한 뒤, 이 내용을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견해 중 하나의 견해를 지지/정당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2019 인문 2교시 기출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견해를 옹호/정당화/지지하라는 문항들은 ‘자료 - 견해’ 간의 연결이 아주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자료들로는 무조건 하나의 견해만을 지지하도록 설계되었던 것이죠. 만일, 자료들을 통해 정답이 아닌 다른 견해를 옹호/정당화/지지할 경우, 바로 오답처리 된다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높은 정답성은 2019 인문 1교시와 2020 모의논술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합니다. 다만, 이 두 문항에서는 [문제 1]의 두 견해를 모두 활용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2019 인문 1교시의 [문제 2]는 각 국가의 상황을 나타내는 자료들을 보고, A국과 B국을 [문제 1]의 각 견해에 연결하는 형태였습니다. A국에는 어떤 견해, B국에는 다른 견해. 이런 식이죠. 잘못 연결하면? 당연히 오답입니다.

견해와 자료의 연결에서 제시문의 내용과 상세히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연결하여 옹호/정당화/지지/연결의 근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해 제시 유형

주로 3번 문항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크게 2가지 양상을 가집니다. 기출 문제의 논제를 살펴봅시다.

[문제 3] 한 국가가 비만을 포함하여 건강관련 문제를 일으키는 식품(예: 백설탕, 트랜스지방, 착색제, 향신료 함유 식품)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하려고 한다. 이 정책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견해 중 하나를 [문제 1]의 한 입장에 근거하여 논술하시오. (30점)

(2018 성균관대 인문 1교시)

[문제 3] 한 국가의 정부가 ‘국가 장학생 선발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소수의 뛰어난 인재들을 적극 육성하는 데 재정적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견해를 [문제 1]의 각 입장에 근거하여 모두 논술하시오. (35점)

(2018 성균관대 인문 2교시)

[문제 3] [문제 1]의 각 입장과 연관지어 <보기>에 있는 인터넷 방송 규제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견해를 모두 논술하시오. (35점)

(2018 성균관대 인문 3교시)

[문제 3] 현재 C국에서는 로봇세의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 중이다. 로봇세란 생산과정에서 일상 근로자(정해진 일상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절차가 정해져 있어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인력)를 대체하는 산업용 로봇의 사용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를 택하여 로봇세 도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견해 중 하나만을 논술하시오. (30점)

(2019 성균관대 인문 1교시)

[문제 3] <보기>에서 언급된 ‘동물해방전선’ 회원들의 현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그들을 기소, 처벌하려는 원고 측의 입장과 그들의 행위를 변호하려는 피고 측의 입장을 [문제 1]의 입장들과 연관지어 각각 논술하시오. (35점)

(2019 성균관대학교 인문 2교시)

[문제3] 국가 C는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방 소재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인재(해당 시·도 소재 대학 출신인 자) 채용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자 한다. 이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 견해를 [문제 1]의 두 입장을 활용하여 각각 논술하시오. (30점)

(2020 성균관대 모의)

다들 비슷해보이는 논제입니다만, 요구하는 것들에 상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2018 인문 1교시, 2019 인문 1교시의 경우에는 둘 중 하나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2018 인문 2, 3교시, 2019 인문 2교시, 2020 성균관대 모의논술은 두 가지 입장을 모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풀어내는 방법론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 두 가지 입장을 모두 이야기하는 유형

1. 견해 제시 대상 정리
2. 입장 선택 - 찬반 연결
3. 찬성
4. 입장 제시문 활용하여 근거 제시
5. 반대
6. 입장 제시문 활용하여 근거 제시

먼저, 어떤 유형이든 문제가 제시하는 문제 상황(견해 제시 대상)을 정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에 제시한 ‘2018 성균관대 인문 2교시’ 논제를 활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장학생 선발 제도를 도입하면 뛰어난 인재들이 장학금을 받고 교육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재정적 지원이 닿은 만큼, 다른 학생들에게는 재정적 지원이 닿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찬반 연결을 각 입장별로 하시면 됩니다. 이 논제는 사회정의에 대해 2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공리의 원리’이고, 하나는 ‘공정한 기회의 평등’, ‘차등의 원칙’입니다. 전자에서는 견해 제시 대상을 찬성할 것이고, 후자의 입장에서는 견해 제시 대상을 반대할 것입니다.

이제 찬성한다는 입장을 추가해줍니다.

### 코드킴의 인문논술

‘국가 장학생 선발 제도를 도입하면 뛰어난 인재들이 장학금을 받고 교육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재정적 지원이 닿은 만큼, 다른 학생들에게는 재정적 지원이 닿지 않게 될 것이다.’

공리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제시문 1,3,4는 해당 정책에 대해 찬성할 것이다.’

그 다음 근거를 제시합니다. 여기에서는 해당 입장에 속하는 제시문을 구체화 시켜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장학생 선발 제도를 도입하면 뛰어난 인재들이 장학금을 받고 교육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재정적 지원이 닿은 만큼, 다른 학생들에게는 재정적 지원이 닿지 않게 될 것이다.’

공리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제시문 1,3,4는 해당 정책에 대해 찬성할 것이다. 제시문 1을 사용한 근거 제시, 제시문 3을 사용한 근거 제시, 제시문 4를 사용한 근거 제시.’

나머지 입장도 해줍니다.

‘국가 장학생 선발 제도를 도입하면 뛰어난 인재들이 장학금을 받고 교육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재정적 지원이 닿은 만큼, 다른 학생들에게는 재정적 지원이 닿지 않게 될 것이다.’

공리의 원리를 주장하는 제시문 1,3,4는 해당 정책에 대해 찬성할 것이다. 제시문 1을 사용한 근거 제시, 제시문 3을 사용한 근거 제시, 제시문 4를 사용한 근거 제시.

그러나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는 제시문 2,5,6은 해당 정책에 대해 반대할 것이다. 제시문 2를 사용한 근거 제시, 제시문 3을 사용한 근거 제시, 제시문 4를 사용한 근거 제시.’

이런 식으로 답안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 한 입장을 선택해야 하는 유형

1. 견해 제시 대상 정리
2. 입장 선택 - 찬반 연결
3. 찬성 혹은 반대
4. 입장 제시문 활용하여 근거 제시
5. 반론 / 재반론
6. 사례 제시(가능한 경우)

나머지 작성에서는 위의 유형과 같습지만, 5에서 차이가 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입장에서 견해제시 대상을 살펴보았을 때, 어떤 반론이 가능할지 생각해보신 다음에 그를 재반론하는 형식으로 나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혹은, 실제 사례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반론 - 재반론을 한다면,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반론의 근거 타당성을 공격하는 방법과 반론을 일부 수용하여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논리적인 답안을 구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례를 제시한다면 실제 사례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의성이 높을수록, 대중적일수록 좋습니다.

## 2019 인문 1교시 해설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7>은 바람직한 국가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30점)

(2019 성균관대 인문 1교시)

### <제시문 1>

부와 소득 불평등에 관한 어떤 경제적 결정론도 경계해야 한다. 부의 분배는 언제나 정치적 요인이 결부되어 있는바 순전히 경제적인 메커니즘으로 환원될 수 없다. 예컨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910년에서 1950년 사이에 불평등이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전쟁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채택한 정책들이 불러온 결과였다. 이와 비슷하게 1980년 이후 불평등이 다시 커진 것은 대체로 지난 수십 년간 나타난 정치적 변화, 특히 조세 및 금융과 관련된 정책 때문이었다. 불평등의 역사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행위자들이 무엇이 정당하고 무엇이 부당한지에 대해 갖게 된 견해들, 이 행위자들 사이의 역학관계, 그리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집합적 선택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역사는 불평등이 모든 관련 행위자들이 함께 만든 합작품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는 자연적이고 자생적인 과정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 <제시문 2>

풍요는 ‘공동선’(common good)을 위해 대중들이 희생한 대가로 달성된 것이 아니라 자유분방하고 생산적인 천재들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창출되었다. 그들은 국가의 산업화를 위해 국민들을 결코 굶기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 높은 임금, 새로 발명한 기계 및 모든 과학적 발견, 기술의 발전을 이용하여 생산한 값싼 상품들을 공급했다. 그 결과로 국가 전체가 발전했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개인이 혜택을 입었다.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는 오류를 범하지 말자. 도덕적 목표나 의무감을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않고도 국가의 선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가의 선은 결과이고 그 원인은 자신의 목표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이다. 자본주의는 인간권리를 보장해 준 결과 때문이 아니라 인간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그 사실 자체로 정당화된다. 자유 시장에서 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경제 행위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이 수요-공급법칙의 도덕적 의미이다. 그것은 악의에 찬 두 가지 교의인 집단주의와 이타주의를 전적으로 거부하며 인간은 재산이 아니고 집단의 노예도 아니라는 사실 및 인간은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긍정한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합리적인 사리사욕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만일 그가 다른 사람과 교환하기를 원한다면 서로 동일한 가치를 교환해야 한다고 본다(여기서 동일하다는 것의 유일한 기준은 거래자의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강요되지 않은 판단이다). 이타주의는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를 위해 봉사하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능력 있는 자들의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하면서 지성으로부터 보상을 강탈하려고 하며, 집단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의 창출 과정에서 개인의 지성이 수행하는 역할을 전면 부인한다.

### 〈제시문 3〉

포괄적인 재분배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도덕적으로 선호되는 국가, 도덕적으로 용인되는 합법적인 국가는 몽상가들과 공상가들의 유토피아적 열망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국가이다. 최소국가는 우리를 불가침의 개인들로 취급한다. 즉 우리는 이 국가 안에서 타인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도 도구나 수단, 자원으로 이용될 수 없다. 최소국가는 우리를 권리를 소유한 존엄한 인격으로 취급한다. 우리의 권리들을 존중함으로써 우리를 존중해주는 최소국가는,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선택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목표와 스스로가 바라는 이상적 인간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우리와 동일한 존엄성을 지닌 다른 개인들의 자발적인 협동의 도움을 받는다.

### 〈제시문 4〉

‘붉은 깃발법’으로도 널리 알려진 영국의 기관차법은 1865년 제정된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이다. ‘붉은 깃발법’은 자동차 최고 속도를 시속 3킬로미터(도심 기준)로 제한하고, 붉은 깃발을 든 기수가 자동차의 최소 55미터 앞에서 차가 오는 것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붉은 깃발법’은 마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되었지만, 사실은 당시 자동차의 출시로 위협을 느낀 마차업자들과 기차산업 종사자들이 정치적 로비를 벌인 결과였다. ‘붉은 깃발법’은 이후 약 30년간 유지되면서 영국의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였는데, 그 결과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은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변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 〈제시문 5〉

자유 시장 체제는 경제의 전반적인 추세를 규정하거나 공정한 기회 균등을 위해서 불가결한 사회적 여건을 제공하는 정치적·법적 제도 체계 내에서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입장도 결점이 있다.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능력과 재능의 천부적 배분에 의해 부나 소득의 분배가 결정되는 것을 허용한다. 소득과 부의 분배가 역사적·사회적 행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할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부적 재능의 분배에 의하여 소득과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도 허용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기회 균등의 원칙은 가족 제도가 존재하는 한 오직 불완전하게만 이루어질 수 있다. 천부적 능력이 계발되고 성숙하는 정도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 여건과 계급 양태에 영향을 받는다. 노력하고 힘쓰며 일반적인 의미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의욕 그 자체까지도 행복한 가정 및 사회적 여건에 달려있다. 실제로 있어서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술 습득과 교양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시인하고 천부적인 운수가 미치는 자의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 〈제시문 6〉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일, 경쟁이 유효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만 비로소 경쟁을 대체하는 일, 그리고 거대 사회에 매우 유익하지만 어떤 개인이나 소수의 개인들이 그 비용을 보상할 수 있을 만큼 이윤이 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이 일들은 확실히 국가가 해야 할 분야들이다. 국가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체제는 없다. 효과적인 경쟁체제는 현명하게 제정되고 지속적으로 조정되는 법적 틀을 필요로 한다. 경쟁이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한 조건은 사기나 (무지한 사람에 대한 착취를 포함한) 기만을 방지하는 것에 국한된다. 이것은 완벽하게 성취된 적은 없지만 반드시 달성되어야 할 목표다.

〈제시문 7〉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들어 유럽 지역 대부분을 위협한 경제 붕괴와 사회 혼란을 겪으면서 대중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제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안정과 공동체, 사회적 보호를 다시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가 등장했는데, 그들은 점점 깊어지는 나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의 출구를 제공했다. 그것은 국가를 통해 시장이 제자리에 복귀되고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근대성이 만들어낸 원자화, 뿌리 뽑힘, 사회적 불화가 극복된 새로운 사회의 비전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는 시장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그러나 폭력적인 해결책을 의미했다. 두말할 필요 없이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라는 치료법은 (그들이 치료하겠다고 나선) 원래의 병보다 더 나쁜 것이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겪고 난 이후의 유럽인들은 시장의 지나친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고 사회적 연대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고자 했다.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라는 해결책이 수반했던 민주주의의 희생과 자유의 유린 없이 말이다.

## 코드킴의 인문논술

## 제시문 독해

논제에서는 각 제시문들을 ‘바람직한 국가에 대한 견해’에 따라 분류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각 제시문을 독해하실 때에 ‘바람직한 국가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시문들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시면서 ‘바람직한 국가에 대한 견해’를 연결지으세요.

### 〈제시문 1〉

주장 - 불평등을 막는 자연적인 과정은 존재하지 않음

=>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과정이 필요

근거 - 역사적으로 불평등은 관련 행위자들이 만드는 정책으로 인해 생성/심화되었음. 또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정책을 통해 이루어졌음.

### 〈제시문 2〉

주장 - 목표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있어야 국가의 선이 보장됨

근거 -

1. 자유롭고 생산적인 천재들로 인해 풍요가 달성됨
2. 이타주의와 집단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공동선의 실현에 방해됨

### 〈제시문 3〉

주장 - 최소국가가 바람직한 국가

코드킴의 인문논술

근거 -

1. 포괄적인 재분배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함
2.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최소국가는 이상적 인간상의 실현을 도움

### 〈제시문 4〉

주장 - 최소국가가 바람직한 국가

근거 - 붉은 깃발법으로 인해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 수 없었음

### 〈제시문 5〉

주장 - 동등한 기회 균등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필요

근거 - 부나 소득의 분배는 역사적, 사회적 행운이나 천부적 재능의 분배에 따라서 이루어져선 안 되기 때문에

### 〈제시문 6〉

주장 - 국가의 역할은 사기나 기만을 방지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함

근거 - 효과적인 경쟁체제를 위해서

### 〈제시문 7〉

주장 - 국가는 지나친 시장의 영향력을 조정하고 사회적 연대를 이룰 수 있게 해야함

근거 -

1. 자본주의는 안정과 사회적 보호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2. 민족사회주의와 파시즘은 폭력적인 해결책이며, 비폭력적인 해결책이 필요함

## 1번 문제 풀이

위의 제시문을 독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견해를 나눈다면, <제시문 1, 5, 7>과 <제시문 2, 3, 4, 6>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시문 1>에서는 불평등이 역사적으로 관련 행위자들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이런 불평등은 자연적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즉, 어떠한 개입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제시문 5>는 조금 더 이론적으로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동등한 기회의 균등을 이루고 천부적인 운수에 따른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원칙의 채택이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제시문 7>도 마찬가지로, 근대의 사례를 통해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는 문제를 일으켰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시장의 지나친 영향력을 통제하고, 사회적 연대를 이룰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단,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처럼 폭력적인 해결책에 아닌, 비폭력적인 해결책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합니다.

<제시문 2>는 국가의 선(풍요와 같은)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표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런 자유로움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자본주의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타주의와 집단주의는 이를 방해하는 요소라는 추가적인 서술도 존재합니다. <제시문 3>은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시함과 동시에 각 견해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어를 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최소국가이며, 이를 통해 이상적 인간상의 실현까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포괄적인 재분배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최소국가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포괄적인 재분배 국가에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제시문 4>는 붉은 깃발법으로 인해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가 만든 붉은 깃발법은 자동차의 수요를 감소시켰습니다. 국가가 법을 통해 산업 발전을 막아버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시문의 독해 및 분류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6>은 경쟁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만, 국가의 역할은 경쟁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기나 기만을 방지하는 법적 틀만을 만드는 것에 국한됩니다. 이를 넘어서는 국가의 활동은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각 견해를 대표할만한 개념어는 <제시문 3>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시문 3>의 ‘최소국가’라는 개념어는 <제시문 2, 3, 4, 6>을 대표할 수 있고, 그에 반대되는 ‘포괄적인 재분배국가’라는 개념어는 <제시문 1, 5, 7>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람직한 국가에 대한 견해’와 연결시킨다면, <제시문 2, 3, 4, 6>은 ‘최소국가가 바람직한 국가’라는 견해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고, <제시문 1, 5, 7>은 ‘포괄적인 재분배 국가가 바람직한 국가’라는 견해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각 견해로 분류된 제시문들의 순서를 정해봅시다.

‘최소국가가 바람직한 국가’라는 견해를 가진 <제시문 2, 3, 4, 6>의 논리적 순서를 생각해봅시다. 개념어를 제시하는 <제시문 3>을 가장 이론적인 제시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한 작동 원리를 부연설명 해주는 <제시문 6>과, 이를 부의 창출과 풍요를 이루는 과정을 들어 설명하는 <제시문 2>를 예시 제시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시문 2, 6>은 경쟁의 구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례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제시문 4>입니다. 정부가 개입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일을 ‘붉은 깃발법’의 사례를 통해 말해주는, ‘포괄적인 재분배국가’처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경우를 비판하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원리와 개념어를 담고 있는 <제시문 3>, 사례를 간단히 이야기하며 최소국가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는 <제시문 2, 6>, 상대 입장에 대한 비판적 사례를 말하는 <제시문 4>를 순서대로 말하는 것이 ‘원리 + 사례 + 비판적 사례’의 구조에 속함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각각의 제시문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시 답안 단계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시문 1, 5, 7>의 순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재분배국가의 근거로 ‘동등한 기회의 균등’의 원리를 활용하는 <제시문 5>를 가장 앞에 둘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역사적인 사례를 <제시문 1>과 <제시문 7>을 통해 말할 수 있으며, <제시문 7>의 경우에는 불평등의 해결책은 비폭력적인 해결책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적당한 순서는 <제시문 5> -> <제시문 1> -> <제시문 7>이 됩니다.

## 코드킴의 인문논술

## 1번 문제 예시 답안

〈제시문 1~7〉은 바람직한 국가는 어떤 국가인지에 대해 두 가지 견해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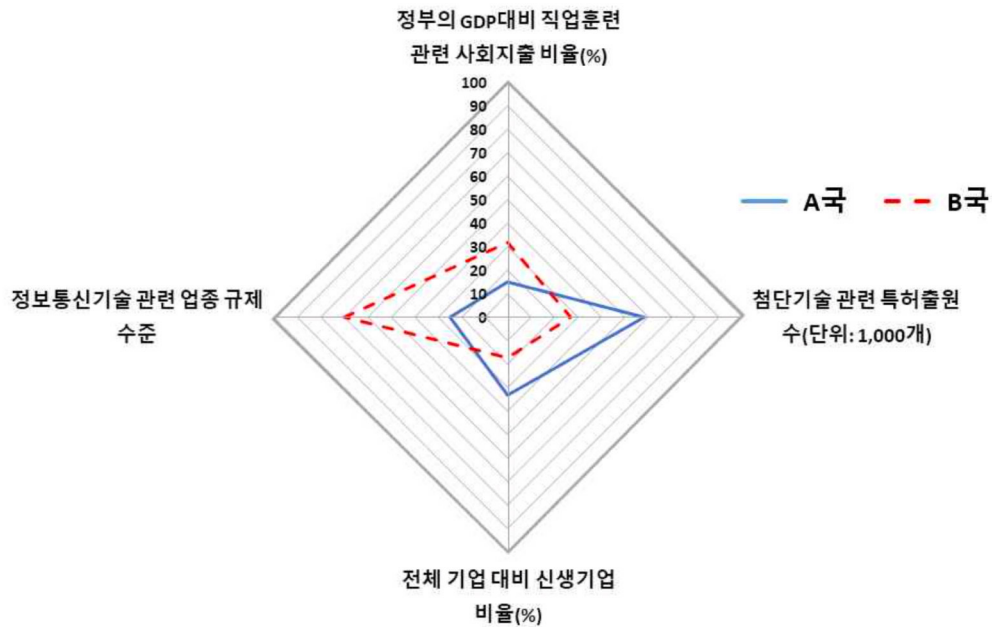
먼저, 〈제시문 2, 3, 4, 6〉은 최소국가가 바람직한 국가라는 견해를 지닌다. 〈제시문 3〉에서 최소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 이상적 인간상의 실현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제시문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본주의 하에서 목표를 자유롭게 추구하는 개인들이 풍요와 같은 국가의 선을 실현시킨다. 이타주의와 집단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기에 공동선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일 뿐이다.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문 6〉에서도 찾을 수 있다. 경쟁체제가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국가는 사기나 기만을 방지하는 법적 틀만을 제공해야만 한다. 이를 넘어서는 국가의 행위가 어떻게 경쟁을 방해할 수 있는지 〈제시문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은 붉은 깃발법을 제정하여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제시문 1, 5, 7〉은 포괄적인 재분배 국가가 바람직한 국가라는 견해를 지닌다. 〈제시문 5〉는 동등한 기회의 균등을 이루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부나 소득의 분배는 천부적인 운수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제시문 1〉은 불평등의 생성과 심화는 관련 행위자들이 만들어내는 정책으로 만들어졌음을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950년 사이의 전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실제로 불평등을 완화했듯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제시문 7〉은 불평등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비폭력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인다.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만든 사회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등장했던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는 폭력적인 해결책이었으며, 민주주의를 해쳤기 때문이다.

## 코드킴의 인문논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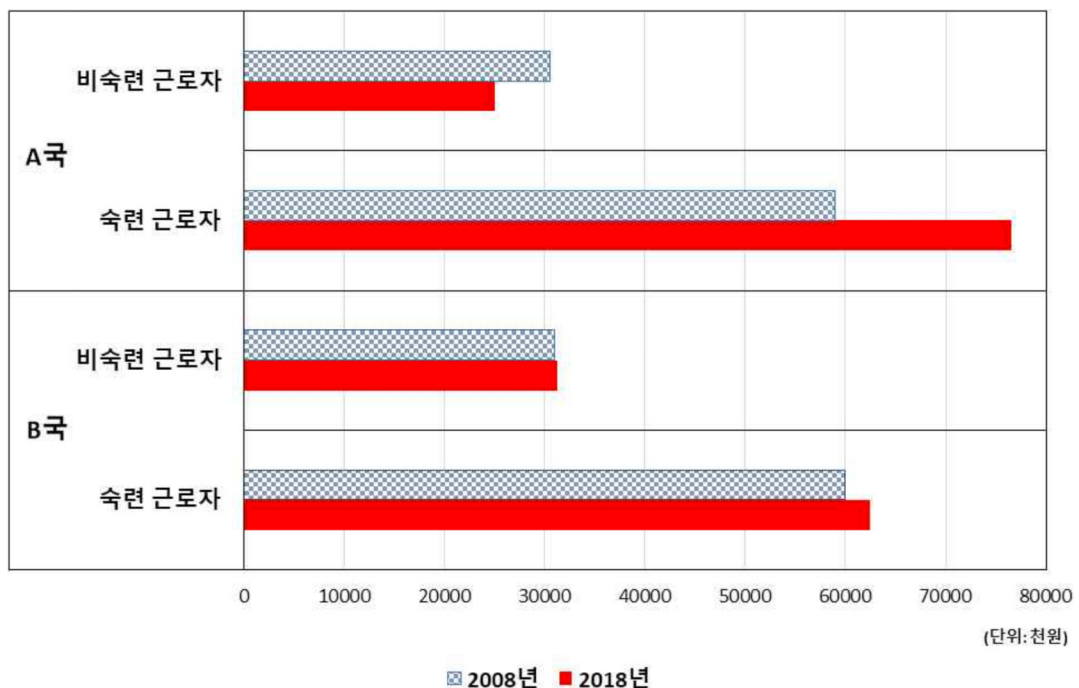
[문제 2] 지난 10년 간 국가 A와 B에서는 산업의 자동화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자료 1>과 <자료 2>를 연계하여 해석하고, 국가 A와 B가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40점)

<자료 1> 주요 사회경제 지표(2008-2018년 평균)



주) 정보통신기술 관련 업종의 규제 수준 0은 규제가 전혀 없는 상태, 100은 완전한 규제 상태를 가리킴

<자료 2> 근로자 1인당 평균 실질 연소득



## 2번 문제 풀이

[문제 2] 지난 10년 간 국가 A와 B에서는 산업의 자동화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자료 1>과 <자료 2>를 연계하여 해석하고, 국가 A와 B가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40점)

먼저 논제의 요구 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간, A국과 B국에서 산업의 자동화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전제가 존재합니다. 이어서, <자료 1>과 <자료 2>를 통합적으로 해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까지를 자료 분석의 단계로 보시고, 각 국가를 [문제 1]의 두 입장과 연결하는 것은 해석의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분석의 단계부터 살펴봅시다.

### 분석의 단계

자료들의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논제의 전제와 요구 사항을 다시 한 번 기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1. 지난 10년 간, A국과 B국은 산업의 자동화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
2. <자료 1>과 <자료 2>를 연결할 것

먼저, <자료 1>을 살펴봅시다. 이 그래프는 2008~2018년의 주요 사회경제 지표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서의 두 대상의 차이를 항목 별로 제시하는 공식적인 자료에 속합니다. 이를 독해할 땐 차이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A국은 B국에 비해 정부의 GDP대비 직업훈련 관련 사회지출 비율, 정보통신기술 관련 업종 규제 수준이 낮습니다. 대신, 첨단기술 관련 특허 출원 수와 전체 기업 대비 신생기업 비율은 B국보다 높습니다. B국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반대로 뒤집으면 되겠죠.

<자료 2>는 2008년과 2018년의 경우, 각 국가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실질 연 소득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A국은 비숙련 근로자의 연 소득이 2008년에 비해 2018년에는 줄어들었고, 숙련 노동자의 연 소득은 증가했습니다. B국의 경우엔 2008년과 2018년 사이, 비숙련 근로자의 연 소득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숙련 근로자의 연 소득은 살짝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국에 비해서 A국의 비숙련 근로자, 숙련 근로자의 연 소득 격차는 2018년에 더 커졌습니다.

이제 두 자료를 연결할 차례입니다. <자료 1>은 10년 간의 평균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10년 간 A국이 B국에 비해 정보통신기술 관련 업종 규제 수준, 정부의 GDP 대비 직업훈련 관련 사회지출 비율, 높은 전체 기업 대비 신생기업 비율, 첨단기술 관련 특허 출원 수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료 2>의 연 소득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비숙련 근로자의 연 소득이 줄고, 숙련 근로자의 연 소득이 늘어난 것이죠. 그리하여 A국은 2008년에 비해서 2018년에 연 소득의 격차가 커졌습니다.

B국도 10년 동안 A국 보다 높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업종 규제 수준, 정부의 GDP 대비 직업훈련 관련 사회지출 비율, 낮은 전체 기업 대비 신생기업 비율, 첨단기술 관련 특허 출원 수를 유지했습니다. 그 결

과, <자료 2>의 연 소득 변화로 이어집니다. 비숙련 근로자의 연 소득엔 차이가 존재하지 않지만, 숙련 근로자의 연 소득은 아주 소폭 상승합니다. 그리하여 B국은 A국에 비해서 비숙련 - 숙련 노동자 간의 2008년 대비 2018년의 연 소득의 격차가 적습니다.

## 해석의 단계

[문제 1]에서는 바람직한 국가에 대한 두 견해가 등장합니다. <제시문 2, 3, 4, 6>의 견해는 최소국가가 바람직한 국가라는 것이며, <제시문 1, 5, 7>의 견해는 포괄적인 재분배국가가 바람직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국가 A는 <제시문 2, 3, 4, 6>의 견해에 속한다는 것을 분석의 단계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관련 업종의 규제 수준이 낮고, 정부의 GDP대비 직업훈련 관련 사회 지출 비율이 낮은 것은 국가 A가 시장에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 최소국가의 모습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체 기업 대비 신생기업 비율과 첨단기술 관련 특허 출원 수가 높습니다. <제시문 2>에서 말했던 자유 분방한 천재들이 이뤄내는 풍요로 연결지을 수도 있겠죠. <제시문 6>에서 말했듯이, 국가가 효율적인 경쟁 체제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만 해냈고, 각 개인들의 권리가 최대한으로 보장된 것입니다. <제시문 4>와 같은 붉은 깃발법이 없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 2>를 통해서도 이런 결과를 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의 자동화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상태에서, 이에 비숙련 노동자들의 연 소득은 줄어 들고, 숙련된 노동자들의 연 소득은 더 높아집니다. 개인의 지성이 부의 창출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제시문 2>의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 코드킴의 인문논술

국가 B는 <제시문 1, 5, 7>의 견해에 속합니다. 정보통신기술관련 업종의 높은 규제 수준과 정부의 GDP 대비 직업훈련 관련 사회 지출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공정한 기회의 균등을 위해 포괄적인 재분배 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B국의 이러한 규제들은 A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체 기업 대비 신생기업의 비율과 첨단기술 관련 특허출원 수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자료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숙련 노동자와 숙련 노동자 간의 소득 격차가 A국에 비해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비숙련 노동자와 숙련 노동자 간의 격차인 노동의 숙련도도, 천부적인 운수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므로, 이들의 영향력을 최소화하여 공정한 기회의 균등을 이뤄내려는 노력을 볼 수 있죠. <제시문 1>이 말했듯, 가만히 놔두는 것으로는 불평등을 막아낼 수 없으며, 국가의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문제 3] 현재 C국에서는 로봇세의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 중이다. 로봇세란 생산과정에서 일상 근로자(정해진 일상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절차가 정해져 있어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인력)를 대체하는 산업용 로봇의 사용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를 택하여 로봇세 도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견해 중 하나만을 논술하시오. (30점)

(2019 성균관대 인문 1교시)

## 논제 상황 분석

논제에 주어진 상황부터 정리해봅시다. C국에서는 로봇세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일상 근로자를 로봇으로 대체할 때에, 로봇의 사용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죠.

## 찬성의 경우

이 정책에 대해 찬성한다면, [문제 1]의 포괄적인 재분배국가가 바람직한 국가라고 생각하는 <제시문 1, 5, 7>의 견해와 연결하여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제시문의 내용들과 연결하여 살펴봅시다.

<제시문 5>를 통해서는 이런 근거의 제시가 가능합니다. 만일, 로봇이 일상근로자를 대체할 경우, 일상 근로자들은 일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불공평한 부의 분배로 인한 불공평이 일자리에 대한 공정한 기회의 균등을 해치는 것이죠. 이런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로봇세와 같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시문 1>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적으로 이 문제를 방치했을 경우에는 이 불평등을 결코 해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봇세는 일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보장하면서도, 로봇의 대체로 인해 벌어질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민주주의를 해치지 않는 평화로운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이는 <제시문 7>의 요구 조건과도 일치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도한 보호가 시장의 발전을 늦출 수 있다는 예상 반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예상 반론 제기) 하지만, 시장의 발전은 시장의 과도한 영향력을 만들 수 있으며, <제시문 7>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런 영향력은 사회적 연대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로봇세와 같은 일상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사회적 연대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을 충족시킬 수도 있는 훌륭한 해결책이 되는 것이죠.(=정면 재반박)

## 반대의 경우

이에 대해 반대 견해를 낼 경우, [문제 1]의 최소국가가 바람직한 국가라고 생각하는 <제시문 2, 3, 4, 6>의 견해와 연결하여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제시문을 활용하여 반대 견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시문 3>에 따르면 로봇세는 로봇이 일상 근로자들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이 존재하는 한, 이상적 인간상의 실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로봇세는 기업들의 권리를 침해하기에, 기업들이 가져다줄 수 있는 풍요와 같은 공동선의 실현을 방해합니다. 로봇세를 부과

하지 않는 것이 자유분방하고 생산적인 천재들이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게끔 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제시문 6>에서 국가는 경쟁체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봇세는 기만이나 사기를 방지하는 법안이 아닌, 그 이상의 규제를 가하는 법안이므로, 경쟁체제의 효율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제시문 4>의 붉은 깃발법이 영국의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지연시킨 것처럼, 로봇세도 특정 산업의 발전을 지연시켜 C국의 국가 경쟁력을 낮추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예상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상 반론 제기) 하지만 사회의 양극화를 막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지성을 발휘하여 얻는 보상을 막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자유분방한 천재들이 사회 전체의 풍요를 가져다줄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로봇세의 도입은 오히려 사회 전체에 더 큰 해악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정면 재반박)

## 코드킴의 인문논술